

성별에 따른 SNS사용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연구: 집단소속감, 지각된 사회지지, 부정적 사회비교의 매개효과

이승욱¹, 최윤영^{2*}, 이현우³

¹동아대학교 의료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²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³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박사과정

The Relation betwee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Depression by Gender: Mediating effects of Collective Identity,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Negative Comparison

Seunguk Lee¹, Younyoung Choi^{2*}, Hyunwoo Lee³

¹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Counseling, Donga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Adolescent Counseling, Hanyang Cyber University

³Doctoral Course,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Hany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Social Networking Sites(SNS)의 사용유형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지지와 부정적 사회비교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483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다집단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트스트랩 분석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는 남녀 모두 SNS를 통해 집단소속감을 느끼며 높은 집단소속감은 높은 사회지지와 낮은 우울감으로 연결되었고, 높은 부정적 사회비교는 높은 우울감으로 연결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여성의 경우 집단소속감이 높을수록 부정적 사회비교 역시 높았고 이는 우울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SNS의 사용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집단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성별에 따른 집단 내에서의 소속감은 부정적 사회비교에 서로 다른 영향을 주었고 이에 따라 우울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주제어 : SNS, 집단소속감, 우울감, 지각된 사회지지, 부정적 사회비교, 성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negative comparison in the relation betwee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depression. For this analysis, 483 samples were collected and conducted by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Collective identity was observed both in Facebook and in Internet Cafe activities. (2) Collective ident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perceived social support, but perceived social support was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Also, negative comparison wa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3) In terms of gender differences, the Facebook activities were negatively related to depression for male while the internet cafe activities were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for female. Lastly, (4) The collective identity was positively related to negative comparison for female.

Key Words : SNS, Collective Identity, Depression, Perceived Social Support, Negative Comparis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SIT) (NRF-2019R1F1A1061251).

*Corresponding Author : Younyoung Choi(yountoto@gmail.com)

Received May 29, 2019

Accepted August 20, 2019

Revised August 8, 2019

Published August 28, 2019

1. 서론

Social Networking Sites(SNS)는 인터넷 연결망을 기반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 간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적 형성을 맺을 수 있게 하였다[1]. 과거의 오프라인에서만 형성되고 유지되던 사회적 관계와 집단의 형성이 온라인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보다 빠르게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2,3,4].

Yun[5]의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에 대한 동기적 요인은 정서적 유대감, 공동의 공간감, 정보의 신뢰성, 정서적 친밀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SNS는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소식을 받아들이며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지지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6].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물질적, 정서적 자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으로써[7,8], 특히 SNS를 통해 새롭게 형성된 집단의 소속감은 지속성이나 소속감 측면에서 약하게 형성될 수 있으나 온라인 내 집단에서의 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여준다는 연구가 보고되어진다[9].

SNS의 다방면적이고 긍정적인 활용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이면에는 개인의 외로움, 불안감,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Jafri[11]의 연구에 따르면 SNS의 과도한 사용은 부정적 감정과 경험을 유발시키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12,13].

이를 종합해볼 때 SNS활동은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어 소외감 및 고립감을 감소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들이 있는 반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부정적인 사회비교로 인해 의기소침, 우울, 열등감, 위축감 등의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어 오히려 삶의 질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12,13]. 이는 비록 개인이 SNS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에 보다 쉽게 소속되어 소속감을 느끼는 할지라도, 소속된 집단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얻는지 혹은 사회비교를 통한 부정적 정서를 얻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개인의 삶의 안녕감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이러한 사회비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나[14] 대부분의 연구들이 오프라인이라는 환경에 국한되어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NS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SNS사용유형이 부정적 감정의 한 요인인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사회비교의 매개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사회의 간접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특성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SNS 사용유형

Boyd와 Ellison[15]은 SNS는 단순히 정보를 획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넘어서 사람들 간에 관계를 맺고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적 가상공간으로 정의하였다. SNS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수단인 만큼 소통대상에 따라 크게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로 구분되어진다[16,17]. 개방형 SNS의 가장 대표적인 예인 페이스북은 불특정 다수의 관심그룹을 대상으로 하여 소통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야기를 듣고 건넬 수 있다[16].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경계 없이 소통하는 개방형 SNS에 반해 폐쇄형 SNS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 제한된 인맥을 기반으로 하여 폐쇄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사용자 간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적 차별화를 두고 있다. 대표적인 폐쇄형 SNS에는 네이버밴드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가 있다[16,17].

이와 같은 SNS 유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는 사용 대상들 간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심리 활동의 차이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 상호 간에 주고받은 소통 내용의 해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SNS의 대표적인 페이스북과 폐쇄형 SNS의 인터넷 카페를 기반으로 SNS 사용 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2 우울감

인터넷 기술과 미디어매체의 발달로 인해 SNS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 이용과 심리적 요인 간에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다수의 연구보고들이 있다[19,20]. 특히 SNS활동이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으며[21] Pantic 등[22]은 온라인 SNS의 사용과 우울감의 상관을 보고하였다. SNS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각된 우울감은 "Facebook Depression"이라는 용어로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 친구들의 즐거운 모습이나 다양한 활동들이 포함된 사진 혹은 글을 보면서 본인의 삶은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경험을 자주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원하지 않는 교류에 대한 회의와 같은 심리적 문제들이 유발될 수 있다[23,24]. 부정적인 감정 유발의 원인은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사회비교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회비교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12,13].

하지만 이에 반해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이 오히려 사용자 집단 간의 친밀함을 높이고 관계성을 강화시켜 그로 인해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감소시킨다는 선행연구 또한 보고되어지고 있다[9,25,2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사용 유형과 SNS상에서의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소속감에 따른 특성의 차이가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3 집단소속감

집단소속감은 개인단위의 구조가 그보다 더 큰 조직단위 공동체의 구조에 소속되어 관계적 연결고리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로써[27] 구성원 상호 간의 욕구만족과 헌신을 통해 공유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다[28]. 선행연구를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공동체를 통한 집단 소속감은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의 행복감을 증진시킨다고 보고되었다[27].

온라인과 같은 미디어 공간에서 역시 콘텐츠 공유, 의사소통 및 정보 전달 등의 상호작용을 통한 지속적인 시간적 접촉은 가상세계에서의 집단을 구성하여 관계맺음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한 소속감을 형성하게 한다[29]. 또한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언제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여 보다 쉽고 빠르게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고립감을 완화하는 긍정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30].

Blanchard, Metcalf와 Burns[30]의 연구에 따르면 콘텐츠 공유, 문화 사회의 취미 공유 등은 소속감 및 동질감을 향상시켜 사회적 고립감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안녕감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Quinn과

Oldmeadow[31]는 현대사회에서 SNS를 통해 집단형성을 활발하게 하는 개인들을 "we-generation"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여 SNS 환경에서의 집단 소속감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집단소속감이 집단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의 이용과 손쉽게 형성되고 일시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행복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또한 보고되고 있다[32,3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집단소속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2.4 지각된 사회지지

앞서 언급되었듯이 긍정적 매개변인인 지각된 사회지지는 타인과의 대인관계 형성을 통해 심리적, 물질적, 정서적 자원 등과 같은 긍정적인 자원을 상호 간에 주고받는 것으로써[7]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시켜 개인이 직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게 도와준다[8].

선행연구에 따르면 더 많은 사회지지를 제공해주는 집단에 소속될수록 정서적 안녕과 같은 심리적 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질병과 같은 신체적 문제 또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34-36].

Nabi, Prestin과 So[37]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에 표시된 친구의 숫자로 측정된 지각된 사회지지는 낮은 스트레스, 그리고 높은 삶의 안녕감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또한 SNS를 통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건강한 삶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연구가 있다[38]. 예를 들어, 암환자나 만성질환환자의 경우 온라인 활동을 통한 집단의 소속감 및 활동이 지각된 사회지지로 연결되어 우울감을 낮춘다고 보고되었으며[39,40], 문자메시지, 온라인게임 등과 같은 온라인 활동을 통한 상호작용에 따른 사회적 지지 역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되었다[41].

다시 말해 단순히 집단소속이 소외감, 고독감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집단에서의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느끼는 지각된 사회지지가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낸다[42,43].

이처럼 SNS의 사용은 사회 관계적 집단의 형성을 온라인으로까지 확장시켰고 이로 인해 집단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오프라인 공동체로부터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환경으로까지 확대되었다[44].

2.5 부정적 사회비교

부정적 매개변인인 부정적 사회비교는 사회비교이론[45]으로 설명된다. 사회비교이론은 자신을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을 경우 차선책으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상향비교는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욕구에서 일어나지만, 부정적으로는 자신감의 하락으로 연결되어 삶의 안녕감이 낮아질 수 있다[46,47]. SNS상에는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 형성을 위해서 행복하고 즐거운 내용들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담긴 내용들이 그렇지 않는 내용들 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48], 때로는 긍정적인 부분만 과장되게 선택되어 보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SNS에서 형성된 타인의 이미지, 행동, 태도를 통해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면 결국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3]. Chou와 Edge[49]의 페이스북 사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페이스북을 사용했던 대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비하여 행복하고 삶이 공평하지 않게 느낀다고 보고하였으며, Feinstein, Hershenberg, Bhatia, Latack, Meuwly 그리고 Davila[50]의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을 통해 부정적 사회비교가 증가될 수 있으며, 이는 부정적 정서를 증가시켜 삶의 안녕감 및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장애와 연결될 수 있음을 밝혔다.

나아가 이와 같은 사회비교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4]. 다시 말해 여성과 남성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비교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비교가 인지와 정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차이점을 보였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의 사용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분석하고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지지와 부정적 사회비교가 매개하는 역할을 살펴보자 하며 더 나아가 이와 같은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하여 SNS사용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부정적 사회비교의 매개효과를 성별에 따라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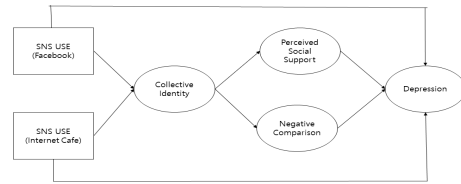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선행연구에 따르면 SNS사용유형에 따라 사용자들 간의 심리 활동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고[16-18], 집단소속감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연결망 속에서 삶의 안녕감을 증진시키거나[27,30] 또는 그와 반대로 사용자의 심리적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 한다는[32,33] 상반된 주장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집단 소속감이 지각된 사회적지지 또는 사회비교의 영향 여부에 따라 사용자에 대한 심리적 상태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성별에 따른 차이의 발생[14] 여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오프라인 환경이라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SNS사용이 집단소속감에 미치는 영향은 SNS사용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 H2: SNS사용에 따른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지각된 사회지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 H3: SNS사용에 따른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회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나타낸다.
- H4: SNS사용에 따른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발생한 매개효과는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의 온라인 교육에 참여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총 5개월에 걸쳐 설문참여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SNS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피험자는 남자 99명(15.2%), 여자 71명(10.9%)으로 본 연구의 주제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483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35.8세였으며 고용상태로 일을 하고 있는 성인이 355명(73.5%)으로 나타났으며 남자 361명(74.7%), 여자 122명(25.3%)이 최종분석에서 사용되었다.

3.3 측정도구

3.3.1 SNS 사용 배경변인

SNS 사용정도에 관하여 연구 참여자의 특성을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였다. 하루 평균 SNS 사용 시간, SNS 주된 사용 목적을 조사하였으며 관련 변인들의 특성에 대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3.3.2 집단소속감

집단소속감을 살펴보기 위해서 Ashforth와 Mael[51]가 제안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각 문항을 응답할 때 본인이 속하고 가장 활발하게 방문하는 SNS에서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대답을 하도록 요구하였다. 총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용된 문항은 “나는 내가 그 집단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 “그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은 나의 이미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나는 그 집단에 강한 애착을 느낀다.”이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3.3.3 지각된 사회지지

지각된 사회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3개의 문항은 사용하였다. 문항으로는 “내가 속한 소셜 네트워킹 그룹으로부터 많은 정서적 지지를 받고 있다.”, “내가 속한 소셜네트워킹 그룹의 사람들은 서로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편이다.”, “내가 속한 소셜네트워킹 그룹의 사람들은 필요한 자원을 잘 나누는 편이다.”이며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2로 나타났다.

3.3.4 부정적 사회비교

부정적 사회비교를 측정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킹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 비해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다.”,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정보를 접할 때마다 부럽게 느껴진다.”,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볼 때 삶이 공평하지 않다고 느껴진다.”의 3문항을 사용하였다(Cronbach's α = .75).

3.3.5 우울감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3개의 문항이 사용되었으며, 관련해서 “자주 눈물이 난다.”, “모든 일이 귀찮고 흥미가 느껴지지 않으며 늘 피곤하다.”, “우울하고 슬픈 감

정을 자주 느낀다.” 본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3.4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먼저 각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살펴보고 있으며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성 확인을 위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 값을 사용하여 문항의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구조모형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구조모형검증에 따른 다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한 집단 간 비교는 구조모형에서 집단들 간의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으로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을 통한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고 집단 간 경로계수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등가제약검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모형의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SPSS 24.0 프로그램을 통하여 기술통계, 내적합치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Mplus 7(Muthen & Muthe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로모형을 통한 다집단분석 및 매개분석을 위한 부트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였다. Mplus는 최근 구조방정식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어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로서 모수에 자유로운 비선형 제약을 가함으로써 다양한 고급기법들을 추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구조방정식의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인 LISREL은 최초의 구조방정식 프로그램이라는 의의가 있으나 그리스 문자의 약어에 기반한 syntax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사용자들에 대한 접근성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IBM의 AMOS는 그래픽 모듈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다소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여주나 모수에 비선형 제약을 가함으로써 추정이 가능한 고급기법들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52].

4. 연구결과 및 해석

4.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Table 1은 SNS 관련 변인들의 기술통계를,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는 Table 2에, 변인들의 상관값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SNS related Variables

Variables		%(Frequency)	Mean (SD)
The Average Time Spent on SNS per day	less than 1hour	18.8%(74)	
	1hour~2hours	28.9%(114)	
	2hours~3hours	24.6%(96)	
	3hours~4hours	13.2%(52)	
	4hours~5hours	7.6%(30)	
	more than 5hours	6.9%(27)	
The Main Purpose of Using SNS	Gathering Information		3.00 (0.69)
	Maintaining relationships		2.91 (0.61)
	Playing online games		2.97 (0.8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483)

Variables	Mean	SD	Skewness	Kurtosis
Facebook Use	1.69	0.94	1.03	-0.24
Cafe	1.97	0.85	0.34	-0.92
Depression	6.77	2.37	0.59	-0.32
PSS	3.54	1.55	0.52	-0.96
NC	3.20	1.35	0.91	-0.12
CI	6.84	2.60	-0.20	-1.11

CI: Collective Identity, PSS: Perceived Social Support, NC: Negative Comparison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of Variables

	1	2	3	4	5	6
Facebook	1					
Cafe	.201*	1				
Depression	.019	.120	1			
PSS	.326**	.240*	.043	1		
NC	.325**	.189	.441**	.374**	1	
CI	.212*	.220*	.034	.441**	.253**	1

*p<.05, **p<.01, ***p<.001.

4.2 구인동등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

집단 간의 경로계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Measurement and Configuration Invariance

Model	χ^2 (df)	TLI	CFI	RMSEA
Measurement and Configuration Invariance	104.93(12)	0.850	0.834	0.120

모형의 검증을 위해서는 RMSEA와 CFI 지수, TLI 지수를 고려하는데, RMSEA 지수가 .06 이하이고 TLI 지수가 .95 이상, CFI 지수가 .95 이상이면 매우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 지수 .11 이하이고 TLI 지수 .90 이상, CFI 수가 .90 이상이면 양호한 적합도를 나타내고, RMSEA 지수가 .13 이하이고 TLI 지수가 .85 이상, CFI 지수가 .85 이상이면 심하게 나쁘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낸다고 보고됨을 기초로 판단하였다[53]. 본 연구는 묶음 문항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이 함께 진행되었다.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chi^2(12) = 104.93, p < .001, TLI = 0.850, CFI = 0.834, RMSEA = 0.120$ 으로, 나쁘지 않는 적합도를 보였다. 따라서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으므로 각 집단 간의 구조관계를 비교하였다. 각 집단별 경로계수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Coefficients of Path Analysis by Gender

Parameter	Male		Female	
	b (S.E.)	β	b (S.E.)	β
Facebook → CI	0.479 (0.123)	0.172***	0.479 (0.123)	0.172***
Cafe → CI	0.595 (0.134)	0.193***	0.595 (0.134)	0.193***
CI → NC	0.077 (0.041)	0.160	0.103 (0.028)	0.193***
CI → PSS	0.260 (0.025)	0.439***	0.260 (0.025)	0.439***
Facebook → Depression	-0.439 (0.200)	-0.182 [†]	0.095 (0.124)	0.036
Cafe → Depression	0.161 (0.202)	0.060	0.353 (0.136)	0.123**
NC → Depression	1.073 (0.148)	0.594***	0.806 (0.089)	0.452***
PSS → Depression	-0.293 (0.069)	-0.200***	-0.293 (0.069)	-0.2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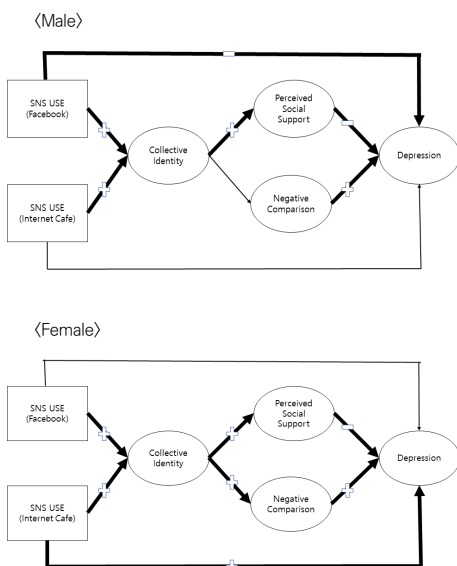
Table 6과 같이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로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집단 간 동등화제약 검증을 실시하였다.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 부정적 사회비교와 우울감, Facebook사용과 우울감, Internet Cafe사용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집단 간의 경로계수 차이가 있었다.

Table 6. Results of Path Analysis

Path	ΔX^2 (Δdf)	ΔTLI	ΔCFI	Result
Cafe → CI	1.202(1)	0.002	0.001	accept
Facebook → CI	0.857(1)	0.003	0.001	accept
CI → PSS	1.212(1)	0.001	0.001	accept
PSS → Depression	1.871(1)	0.002	0.003	accept
CI → NC	6.210(1)	0.012	0.009	reject
NC → Depression	4.223(1)	0.005	0.010	reject
Facebook → Depression	5.239(1)	0.031	0.021	reject
Cafe → Depression	6.012(1)	0.033	0.012	reject

4.3 경로계수 추정치결과 및 성별차이분석

남녀 모두에게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의 사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집단소속감($\beta=0.172, p<.001; \beta=0.193, p<.001$)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우울감과는 남자는 Facebook 사용만이 유의미한 부적관계(남: $\beta=-0.182, p<.05$)를, 여자는 Internet Cafe 사용만이 유의미한 정적관계(여: $\beta=0.123, p<.01$)를 보여줬다. 집단소속감은 남녀 모두 지각된 사회지지($\beta=0.439,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와의 정적관계는 여자만 유의미하였다(여: $\beta=0.193, p<.001$). 마지막으로 남녀 모두 지각된 사회지지는 우울감($\beta=-0.200, p<.001$)을 낮추고, 부정적 사회비교는 우울감을 높였다(남: $\beta=0.594, p<.001$; 여: $\beta=0.452, p<.001$)(Fig. 2).



간접효과 추정을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7). 남녀모두 집단소속감은 지각된 사회지지를 매개하여 우울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성은 집단소속감과 우울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사회비교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7. Mediating Effects of the Relation between Collective Identity and Depression

Path	Male		Female	
	b	BC 95% CI	b	BC 95% CI
CI(PSS) Depression	-0.076	(-0.139 -0.029)	-0.076	(-0.139 -0.029)
CI(NC) Depression	0.082	(-0.028 0.214)	0.083	(0.023 0.150)
Facebook (CI, PSS) Depression	-0.076	(-0.076 -0.010)	-0.036	(-0.076 -0.010)
Facebook (CI, NC) Depression	0.039	(-0.010 0.145)	0.040	(0.011 0.091)
Cafe (CI, PSS) Depression	-0.045	(-0.105 -0.012)	-0.045	(-0.105 -0.012)
Cafe (CI, NC) Depression	0.049	(-0.010 0.145)	0.049	(0.013 0.112)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SNS 활동과 우울감의 관계에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을 집단소속감과 지각된 사회지지, 부정적 사회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이와 같은 관계는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반영하여 성별에 따른 경로분석을 통한 다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녀 모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집단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가상세계에서의 관계 맺음 및 공통된 관심사의 공유 또한 소속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38]. 그러나 SNS의 유형에 따라 우울감과의 직접효과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남자의 경우는 페이스북 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반면 여자의 경우는 인터넷 카페활동을 통해서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 SNS의 유형에 따라서 사용 목적 및 동기가 다르며, 개인들의 활동 및 심리적 역동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설

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소속감과 지각된 사회지지는 정적관계가 있으며, 이는 낮은 우울감으로 연결되었다. 이 역시 SNS활동을 통해 집단소속감을 느껴 사회적 지지를 지각하며 결과적으로 소외감, 고독감 등이 줄어든다는 기존의 연구[34]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하지만,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 그리고 우울감의 관계는 남녀의 결과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남자의 경우는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 간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지 높은 부정적 사회비교는 높은 우울감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여자의 경우는 집단소속감이 높아도 부정적 사회비교가 자주 일어날 수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는 높은 우울감과 관련이 있었다. 즉, 남성의 경우는 집단소속감과 부정적 사회비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지 않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비록 집단소속감이 높아도 낮은 부정적인 사회비교가 일어날 수 있음이 알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여성은 집단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이든 양방향으로 사회비교가 일어나며, 이를 통해서 자기 정체감, 집단 정체감을 형성한다는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매개분석의 결과로는 남녀 모두 SNS에서의 집단소속감은 지각된 사회지지를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우울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의 경우는 부정적 사회비교가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고, 여성의 경우는 부정적 사회비교가 매개변인으로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론적 시사점과 관련하여 SNS 사용 유형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고 더 나아가 집단소속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정적 사회비교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역할을 살펴봄으로써 SNS를 통한 긍정적 사회교류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SNS 이용과 심리적 요인 간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남녀의 집단별 차이점을 두 변인 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SNS 상에서 형성 가능한 집단소속감이라는 변인을 추가하여 집단소속감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 사회비교와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선행 모형을 한층 더 강화시켰다는 시사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남녀 집단에 따른 사회비교가 대부분 오프라인이라는 환경에 국한되어 연구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SNS라는 온라인 환경을 적용시킴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른 남녀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시사점

역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은 우선 남녀 집단 간의 SNS의 사용유형에 따라 우울감이라는 심리적 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남성의 경우 Facebook과 같은 개방형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경계 없이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공간을 이용함으로써 우울감을 낮출 수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인터넷 카페와 같이 이미 알고 지내온 사람들 간에 소통을 주고받는 폐쇄형 SNS의 이용이 오히려 우울감을 증가시킨다는 점이다. 또한 집단소속감이 부정적 사회비교를 통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역시 남녀 집단 간에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남성의 경우 타인들과의 사회비교에 대해 관련성을 느끼지 못 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소속된 집단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우울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남녀 사용자들의 SNS 사용과 심리적 영향에 대해 더 나은 실무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한 응답을 통해서 분석이 이루어져서 지각된 심리학적 변인의 응답 결과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에 자기보고식 응답의 단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남녀의 구조모형을 비교하기 위하여 형태동일성 및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지만, 연구대상의 남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이점을 결과해석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SNS사용 및 활동의 절대량을 측정하기 위해 위한 문항이 추가되어 측정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Facebook의 친구 수 및 Internet Cafe의 가입자 수, 하루에 접속하는 횟수 등을 수집하여 연구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비교의 개념을 반영하여 부정적 사회비교 외에 상향비교, 하향비교, 유사비교등과 같은 비교의 종류를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REFERENCES

- [1] A. Kouvo & P. Räsänen. (2005). Does the internet have an impact on sociability? In Wilska, Terhi-Anna & Haanpää, Leena (Eds.), *Lifestyles and Social Change* (pp. 205-228). Turun kauppakorkeakoulu: Turku.
- [2] A. Harris. (2004). *Future Girl: Young women in the 21st Century*. Routledge, New York & London.
- [3] L. Hillier & L. Harrison. (2007). Building realities less

- limited than their own: young people practising same sex attraction on the internet. *Sexualities: studies in culture and society*, 10(1), 82-100.
- [4] Z. Papacharissi. (2004). The blogger revolution? Audiences as media producers. Paper presented in the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Division.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New Orleans, LA.
- [5] S. U. Yun. (2011). Study on the effect of Twitter user's use motive on the emotional connectedness, awareness of Co-space, reliability of information and emotional intimacy. *Korean politic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2, 131-170.
- [6] E. G. Park & J. H. Kim. (200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 On-line Community on Community Involvement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9(1), 13-25.
- [7] S. Cohen & H. M. Hoberman.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8] I. G. Sarason, H. M. Levine, R. B. Basham, & B. R. Sarason.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27-139.
- [9] Y. K. Cho, Y. M. Baek & B. Y. Kim. (2014). How and Why Does SNS-based Interaction Promote Perceived Social Support?: Focusing on Types of SNS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2(2), 5-31.
- [10] P. S. Meena, R. Soni, M. Jain & S. Paliwal. (2015). Social networking sites addiction and associated psychological problems among young adults: a study from North India. *Sri Lanka Journal of Psychiatry*, 6(1), 14-16.
- [11] H. Jafri. (2015). A study on facebook addic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emotional experience and coping strategi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Psychology*, 2(4), 7-14.
- [12] S. J. Kim & T. Y. Kim. (2012). How the Emotion of SNS Contents Influence the Users' Affective States: Focused on Facebook Newsfeed Pages.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9(1), 5-47.
- [13] L. F. Cai. (2013). *The study on negative emotions of the social relational SNS use: focused on Facebook*. Master's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14] F. X. Gibbons & B. P. Buunk. (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Social Comparison: Development of a Scale of Social Comparison Orient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1), 129-142.
- [15] D. Boyd & N. B. Ellison. (2007).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3(2), 210-230.
- [16] J. C. Park, N. H. Chung & C. M. Koo. (2013). The Investigation of 'Use Motivation-Benefit' Relations in the Social Networking Service Type. *Journal of Consumption Culture*, 16(2), 247-268.
- [17] Y. K. Ko, K. H. Kim & S. Y. Oh. (2015). Characteristics Analysis of Each Type of SNS based on Construal Level Theory. *The Journal of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15(1), 113-125.
- [18] Y. Trope, N. Liberman & C. Wakslak.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83-95.
- [19] S. Y. Lee & H. J. Jun. (2015). Differences in Depression and Impulsivity depending on Hours Spent on SNS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6(11), 7607-7616.
- [20] N. Banjanin, N. Banjanin, I. Dimitrijevic & I. Pantic. (2015).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depression: focus on physiological mood oscillations, social networking and online addictive behavior. *Computers in Human Behavior*, 43, 308-312.
- [21] H. S. Ryu. (2013).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and Motives for Facebook on SNS Addiction and Psychological Problems*. Master's dissertation.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22] I. Pantic et al. (2012). Association between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dep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behavioral physiology viewpoint. *Psychiatria Danubina*, 24(1), 90-93.
- [23] T. Fujiwara & I. Kawachi. (2008). A prospective study of individual-level social capital and major depress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pidemiological Community Health*, 62, 627-633.
- [24] S. W. Hwang & J. J. Park. (2011). Facebook, What's the Proble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of Psychological Problems. *Korean Society for Advertising Education*, 91, 68-95.
- [25] J. Kim & J. E. R. Lee. (2011). The Facebook paths to happiness: Effects of the number of Facebook friends and self-present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4(6), 359-364.
- [26] J. Kim, R. LaRose & W. Peng. (2009). Loneliness as the cause and the effect of problematic Internet us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Cyberpsychology & Behavior*, 12(4), 451-455.
- [27] S. B. Sarason. (1974). *The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Prospects for a community psychology*.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28] D. W. McMillan & D. M. Chavis. (1986). Sense of community: A definition and theory.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1), 6-23.
- [29] H. C. Ko & F. Y. Kuo. (2009). Can blogging enhanc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disclosure?.

- Cyberpsychology & Behavior*, 12(1), 75-79.
- [30] M. Blanchard, A. Metcalf & J. Burns. (2008). Bridging the Digital Divide: Young people's perspectives on taking action. Research Report No 2, *Inspire Foundation and Orygen Youth*, University of Melbourne, Melbourne.
- [31] S. Quinn & J. A. Oldmeadow. (2013). Is the generation a 'we' generation? Social networking use among 9-to13-year-olds and belonging.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1, 136-142.
- [32] S. M. Reich. (2010). Adolescents' sense of community on myspace and facebook: a mixed-methods approach.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8(6), 688-705.
- [33] S. J. Kim, E. J. Yang & J. H. Kwon. (2013). Effects of Online/Offline Self-Disclosure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Happiness : Comparison Between the Horizontal Collectivism and the Vertical Collectivism.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30(4), 5-42.
- [34] M. M. Aanes, M. B. Mittelmark & J. Hetland. (2010). Interpersonal stress and poor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loneliness. *European Psychologist*, 15, 3-11.
- [35] E. R. Greenglass & L. Fiksenbaum. (2009). Proactive coping, positive affect, and wellbeing. *European Psychologist*, 14, 29-39.
- [36] R. J. Gruen, D. Schuldberg, E. A. Nelson, L. Epstein, L. Weiss & D. M. Quinlan. (1994). Network orientation and depressive symptomatology: Development of the network utilization scal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3(4), 352-365.
- [37] R. L. Nabi, A. Prestin & J. Y. So. (2013). Facebook Friends with (Health) Benefits? Exploring Social Network Site Use and Perceptions of Social Support, Stress, and Well-Be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6(10), 721-727.
- [38] V. L. Brown & M. A. Riley. (2005). Social Support, Drug Use, and Employment among Low-Income Women.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1(2), 203-223.
- [39] J. Kim, J. Y. Han, B. Shaw, F. Mctavish & D. Gustafson. (2010). The Roles of Social Support and Coping Strategies in Predicting Breast Cancer Patients' Emotional Well-being: Testing Mediation and Moderation Model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5(4), 543-552.
- [40] B. R. Shaw, J. Y. Han, R. P. Hawkins, F. M. McTavish, & D. H. Gustafson. (2008). Communicating about self and others within an online support group for women with breast cancer and subsequent outcomes.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3(7), 930-939.
- [41] R. J. Swickert, C. J. Rosentreter, J. B. Hittner & J. E. Mushrush. (2002). Extraversion, social support processes, and stres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 877-891.
- [42] N. Banjanin, N. Banjanin, I. Dimitrijevic & I. Pantic. (2015).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use and depression: Focus on physiological mood oscillations, social networking and online addictive behaviour. *Computers in Human Behaviour*, 43, 308-312.
- [43] H. Y. Lee. (2012). *The Effects of Social Anxiety on Perceived Online Social Support in Social Networking Sites and Instant Messaging*.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44] S. D. Lee, S. Y. Lee, & G. J. Kim. (2015). Social Media and Social Support Experiences. *Korea Association for Telecommunications Policies*, 22(1), 85-121.
- [45] L. Festinger. (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2), 117-140.
- [46] P. Salovey & J. Rodin. (1984).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780-792.
- [47] L. Wheeler & K. Miyake. (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5), 760.
- [48] N. Ellison, R. Heino & J. Gibbs. (2006). Managing impressions online: Self-presentation processes in the online dating environment.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1(2), 415-441.
- [49] H. G. Chou & N. Edge. (2012). "They Are Happier and Having Better Lives than I Am": The Impact of Using Facebook on Perceptions of Others' Liv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5(2), 117-121.
- [50] B. A. Feinstein, R. Hershenberg, V. Bhatia, J. A. Latack, N. Meuwly & J. Davila. (2013). Negative Social Comparison on Facebook and Depressive Symptoms: Rumination as a Mechanism. *Psychology of Popular Media Culture*, 2(3), 161-170.
- [51] B. E. Ashforth & F. Mael. (1989). Social identity theory and the organ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14(1), 20-39.
- [52] S. Y. Kim. (2016). *Fundamentals and Extens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oul : Hakjisa.
- [53] L. T. Hu & P. M. Bentler.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이 승 옥(Seunguk Lee)

[학생회원]



- 2003년 3월 ~ 2014년 6월 : 육군 병영 상담 / 지휘관 및 참모
- 2014년 8월 : 한양사이버 대학교 상담 & 임상심리(석사)
- 2014년 7월 ~ 현재 : 법무부 부산교도소 분류심사/심리평가 담당
- 2018년 2월 ~ 현재 : 동아대학교 의료

상담심리학과(박사과정 중)

- 한국심리학회 중독심리전문가(제 236호)
- 관심분야 : 중독심리, 범죄심리, 임상심리, 심리평가
- E-Mail : lsu114@korea.kr

최 윤 영(Younyoung Choi)

[정회원]



- 2002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학사)
- 2009년 8월 :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Measurement, Statistics, and Evaluation 석사)
- 2012년 5월 : 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

(Measurement, Statistics, and Evaluation 박사)

- 2012년 2월 ~ 현재 : 한양사이버대학교 청소년상담학과 교수
- 관심분야 : 학습분석, 측정이론, 타당화, 베이지안네트워크
- E-Mail : yountoto@gmail.com

이 현 우(Hyunwoo Lee)

[학생회원]



- 2010년 2월 : 동아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사)
- 2012년 8월 :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 2017년 3월 ~ 현재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박사과정 중)
- 관심분야 : 교수설계, 학습분석, 이러

닝, 심리측정

- E-Mail : bbangtris@naver.com